

# 국가사적지 멋대로 파헤친 광산구 무책임 행정

### 광주 신창동 유적지 배수로 공사, 문화유산 전문가 입회 없이 무단 굴착 구청은 업체 공사 이뤄진 것도 모르고 뒤늦게 확인... 문화유산 훼손 우려

광주시 광산구의 광주 신창동 유적지(사적)에서 문화유산 전문가 입회 없이 무단으로 굴착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과정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파괴행위가 이뤄졌다며 대책을 촉구 하고 있다.

2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3-2(신창동 유적) 반월마을 입구 인근 비탈면에는 20여m 길이의 콘크리트 배수관이 설치 돼 있었다. 배수관 뒤쪽 30여m는 사각형으로 흙이 굴착돼 물이 고여 있었다.

이 배수관은 지난 12월 설치된 것으로, 공사 업체는 전문가 입회 없이 임의로 굴착 및 배수관 설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광산구가 '광주 신창동 유적 배수로 정비공사'를 해 왔다. 유적지에 있던 자연 배수로에 잡초, 폐기물 등이 누적돼 고인 빗물이 인근 도로로 넘친다는 민원이 잇따르며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배수로의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플룸관(폭 40cm, 콘크리트 수로관)과 스틸그레이팅(격자형 배수로 뚜껑)을 300m 길이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반월마을 입구 지하도와 가까운 100m 길이 구간은 '긴급 임시조치 구역'으로 정해 배수관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는데, 고인 물이 인근 지하도까지 넘쳐 겨울이면 빙판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총 예산은 국비 9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당초 예정 준공일은 오는 23일이었다.

광산구는 사업 부지가 신창동 선사유적지에 포함돼 있는 만큼 사전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관리 설계승인을 받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설계설명서 및 도면 사업지침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수로 정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고, 국가유산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

을 추진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굴착 등 공사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가 입회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업체는 광산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긴급 임시조치 구역'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한술 더 떠 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뒤늦게 현장을 확인했다. 공사 업체에 "굴착을 시작하면 전문가가 입회해야 하니 미리 알려달라"고 전달했는데, 업체 측에서 아무런 통지를 해 오지 않아 상황 파악이 늦어졌다는 것이 광산구 설명이다.

더구나 공사가 이뤄진 당일 광산구는 공사 현장에 '공사 일시 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구역 내에서 설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지장물인 물웅덩이가 발견된 데 따라 국가유산청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공사 업체는 기존 자연배수로를 다듬고 배수로를 얹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 행위의 기준인 50cm 성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굴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긴급 임시조치 구역은 물웅덩이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나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며,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야 일시 중지 명령이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 공사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유실됐을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신창동 유적은 저습지와 토층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의 한 문화유산 전문가는 "아무리 주민 민원 해결 차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다 관할구청에서도 공사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유물이나 집 더 등이 남아있을지도



20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 내에 배수로가 파이고 콘크리트 배수관이 설치돼 있다.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공사 업체에 행정 처분 등 제재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든 공사 행위에 전문가가 입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수준의 공사만 이뤄진 만큼 지금까지는 위법한 상황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경미한 공사 행위라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입회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신창동 유적지는 기원전 1세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철기시대와 삼국시대에 걸친 유적으로 1992년 국가사적 제375호로 지정됐고 현재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방지 흔적, 목재유물, 탄화미(그을린 쌀) 등 유물 2만여점이 출토돼 마한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적지로 꼽힌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불뼉뼉... 전기적 요인 추정 주택 화재 잇따라

### 급증하는 전열기 사용 주의 요망

광주·전남에서 강추위로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10층 규모 오피스텔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해 화재 사실이 알려졌다. 화재 3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7층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대피소통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 20분께 영암군 신북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들이 모두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이 전소하는 등 소방 추산 2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 20여분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여주시 울촌면에서도 단독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이 모두 탔다. 불은 3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세 곳의 화재 모두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건설업체에 자격증 불법대여 알선 수억 쟁겨

### 광주서부경찰, 50대 여성 구속

건설업체에 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하고 수억원을 쟁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50대 여성 A씨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0개 건설업체에 기술자격증 소지자 70여명을 알선하고 건당 100~300만원씩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일부를 A씨에게 떼어줬다.

A씨는 광주·전남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

를 받을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을 노려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들은 알선받은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직인 목록에 올려 놓았으나, 자격증 소지자들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한 자격증 소지자가 A씨와 수당 분배 등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달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직만 알선해줬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감사관 채용 비리'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구속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 검찰이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광주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이던 지난해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등

장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됐다.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각종 의혹이 일자 2023년 4월 사임했다. 경찰은 1년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민원 처리 대가 금품 요구 순천시의회 징역 2년 6월 선고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순천의 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순천시 한 건설업체에게 민원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 의원은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 모범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얼**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